

特輯Ⅱ

石油協會에 바란다

—李東圭·洪在英·李會晟·金東源·鄭信模
—劉在喆·柳龍澤·金汝榮·張永俊·李曠熙



◇設立目的：會員 상호간의 理解와 友好增進을 통해 石油産業의 健全한 發展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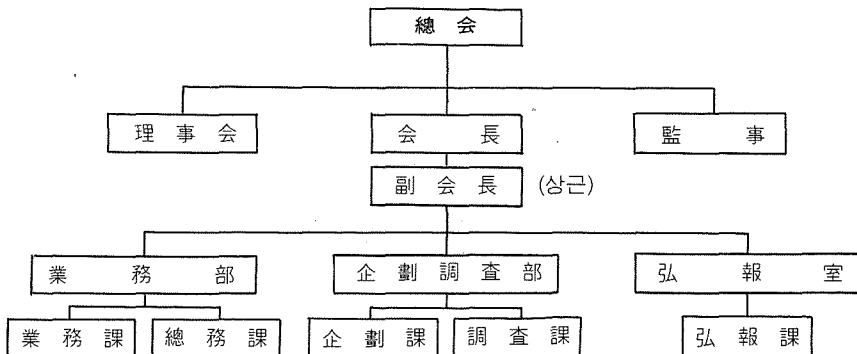
◇設立日字：1980. 9. 29

◇任 員

◇主要任務：
 ●國內外 석유산업에 관한 資料와 情報의 수집, 분석, 보급.
 ●석유산업 施策運營에 도움이 되는 石油業界의 건의 調整, 集約.
 ●石油産業에 관한 弘報活動.

会 長 崔 鍾 賢 (株)大韓石油公社·社長	理 事 李 承 源 双龍精油株式会社·社長
副会長 咸 秉 昭 (常勤)	理 事 張 洪 宣 極東石油株式会社·社長
理 事 具 平 會 湖南精油株式会社·社長	理 事 李 源 祚 韓國石油開發公社·社長
理 事 金 昇 淵 京仁에너지株式会社·社長	監 事 安 孝 榮 안권회계법인·代表

◇機 構：



“石油協會에 바란다”



國家・社會에 貢獻할 수 있는 權威있는 機構가 되기를 바란다

李 東 圭 〈動資部 油政課長〉

먼저 창립 1주년을 맞는 大韓石油協會에 진심으로 祝賀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제 2차 오일쇼크가 全世界를 엄습한 이래 각국은 石油의 安定確保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物量不足 현상과 原油價暴騰현상하에서 국내 精油業界는 政府와 보조를 맞추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업계는 단합된 힘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바, 이에 따라 大韓石油協會를 창립하게 되었음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다행히 石油協會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훌륭하게 부여된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크게 바람직한 일로서 환영해마지 않는 바이다.

우리가 창립 1주년을 맞는 石油協會에 대해 바라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의 設立趣旨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協會가 당초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협회가 되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 왔다.

그러나 大韓石油協會만은 國家를 위해 꼭 必要한 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石油協會는 精油業界를 代表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산하 會員社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精油業 자체가 단순한 營利企業이 아닌 고도의 公益性을 지닌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石油協會도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業界의 의견을 정부나 國民에게 전달하는 일 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정부나 國民의 의견을 業界에 전달하는 것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기때문에 石油協會의 存在價值가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美國의 「美國石油協會」(API)와 같이, 충분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社會에 貢獻할 수 있는 권위있는 기구가 있음은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일인 것이며, 우리는 石油協會에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석유협회가 이처럼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業務能力培養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또한 세계 油類需給사정은 그 누구도 樂觀을 불허하는 사정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有能한 오일맨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오일맨은 一朝一夕에 양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며 長期間에 걸쳐 教育訓練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石油協會가 이런 유능한 오일맨을 양성하는 核心機關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밖에 石油에 관한 한, 단순한 微視의 시각 보다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세계의 石油事情을 透察하는 능력이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 視角은 보다 유용한 情報과 資料를 수시로 分析研究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석유정보를 항상 얻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有 關機關과의 계속적인 協調체제가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石油協會가 앞으로 우리나라 石油問題 전반에 걸친 핵심기관으로서 公益과 私益을 적절히 調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政府에 대해서도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建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업계의 정당한 主張을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信賴를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되어주기 바라면서 협회의 앞날에 무한한 發展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보다 強力한 調整機能 갖추고 業界活性化에 積極 対応토록

洪 在 瑛 (雙龍精油 常務)

国内外의 인 격동의 시기에 出帆하여 뜻깊은 創立 1 周年을 맞이한 協會와 협회를 이끌어온 任職員 여러분 의 노고에 衷心으로 致賀를 드린다.

精油業界에 入門한지 일천한 사람으로서 경험이나 전문지식도, 예리한 통찰력도 不備한 채 구체적인 가치판단이나 의견제시를 한다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지만 협회창설 1주년에 즈음하여 나름대로 느낀 바를 몇마디 적어보고자 한다.

이제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내온 우리의 精油産業이 어떤 이유와 원인에 의한 것이건 간에 前例없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하여 기업수익의 악화와 침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直視할 때 과거 타업계에 종사하면서 精油業界에 대하여 지니고 있던 先入觀들과 너무나 달라진 実情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된 것은 逆說的이긴 하지만, 아주 값진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피상적인 느낌이지만 정유업계의 실상이나 당면한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배경이나 현실적 근거등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물론 과거의 外資系석유자본들이 특장진출국의 사정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도외시키고 메이저特有의 강압적인 多国籍기업전략을 생산, 유통, 가격, 원유공급등 모든 側面에서 貫徹해 온 歷史的 사정과 1960 연대이후의 정부의 巨視的, 能率的 産業정책의 缺如, 합리적인 産業經濟정책효과와 企業침투의 失敗 그리고 1, 2차석유파동의 連鎖的인 가격인상의 충격등이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業界外部에서의 精油産業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객관적이며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다분히 비판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또한 마찬가지로 살피볼 수 있겠지만 精油産業이 國家에너지수급, 주요산업원료의 공급, 기타 국민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 산업으로서의 확대, 발전, 개발을 위한 再投資의 가능성은 차치하고 최소한 연명 내지 存立條件의 整備에 초차도 어떤 종합적인 産業政策的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事實 또한 업계전체가 심각하게 살피보아야 할 課題가 아닐까 생각된다.

요즘 유행처럼 이야기되는 重化学工業육성방안을 立案하거나 論說하는 그 혼란 모임이나 협의과정을 보더

라도 精油産業은 산업, 투자정책의 우선순위나 活性化 대상에서 항상 소외되거나 밀려나 있고 마치 폭리나 독과점기업의 代名詞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業界내부로 눈을 돌려보아도 문제는 적지 않다. 원래 어려운 집안에서는 형제끼리의 우의나 단합이 역경을 헤치고 가족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오는 첩경이다. 그런데 요즘의 유통과정에서의 경영이나 가격관리 제도등 일부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아작은 업계전체가 당면한 근본문제들에 대한 인식이나 視角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 같다. 당연한 결과로서 업계가 일반소비자나 거래선,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업계의 입장이나 真意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필요한 의견제시조차도 장기적인 에너지산업의 발전이란 次元에서 객관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현재의 경영여건이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國家에너지산업의 중추적 기간기업으로서 위치를 지키면서 장래에 불가피하게 요구될 石油에너지자원의 국내외에서의 자주개발, 공급체널의 정비, 다양화, 수급安定의 유지, 발전, 가공산업에의 원료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의 주도적참여, 경쟁력의 강화와 효용성의 增大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관철과 정부, 국가의 적정한 산업정책적 배려의 유도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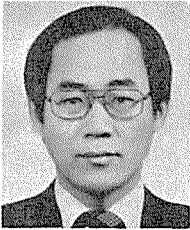
협회가 이제까지 너무나 어려운 여건하에서 힘써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업계에 대한 외부의 인식결여와 이해부족, 업계내부의 다양각색의 의견차이, 急變하는 경제환경과 경제정책기조를 무릅쓰고 고도의 利害關係를 추구하며 적극적인 對國民弘報와 석유에너지관계정보의 수집, 전달에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업계유일의 대화와 協議의 窓口로서의 역할을 大過없이 성실히 추구해온 공적은 업계에 있는 모든 当事者들이 감사해야 할 줄 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격동의 시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協會는 보다 強力한 조정 및 업무정보기능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업계의 입과 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업계는 국가의 중추적 에너지산업이라는 자부심에 손색이 없도록 대외적 이미지개선과 진정된 大義와 객관적 입장의 전달 및 설득창구로서의 업무확대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日本이나 歐美제국에서와 같이 「石油産業이 국가적으로 艱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의 확립과 그에 상응한 산업정책적 배려의 유도에 全力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건투를 빌며 발족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研究開發과 專門家양성에 注力해야

李 會 晟 <韓國動力資源研究所·經博>

우리나라에 너지産業의 根幹이 되고 있는 石油産業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精油会社間의 이해와 友好增進을 목적으로 설립된 石油協會의 創立1周年을 맞이하여,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石油는 全量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低廉한 가격때문에 그동안 그 比重이 매우 높아져 왔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어났던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은 石油價格의 급속한 上昇과 石油確保에 대한 不確實性을 증대시킴으로써, 脫石油政策이 대두, 石油消費는 그 增加추세가 둔화 또는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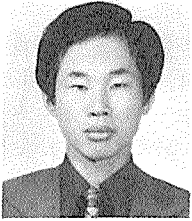
또한 對內的으로는 경제운용을 정부주도형에서 民間主導型으로 變換시켜 정부의 民間部門 介入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對外的으로는 OPEC産油國들의 계속되는 精油施設 확장으로 石油製品의 수출을 위해 原油와의 兼買를 강요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등 우리나라 精油業界는 國內外的으로 많은 難問題들을 解決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石油協會의 重要性은 점차로 커지고 있다.

定款에 의한 石油協會의 임무는, ① 石油産業과 관련된 國內外 市場情報의 蒐集, 분석, 및 보급, ② 精油会社間의 異異調整 및 石油産業發展에 도움이 되는 意見, 정책제시 및 ③ 弘報活動등이다. 이러한 임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豫見되는 80년대의 難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研究開發이 石油協會의 主要活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적인 研究開發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石油를 포함한 에너지관련 데이터의 体系的 정비이다. 모든 研究開發의 기초는 데이터의 체계적 정비에 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라도 그것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效率的인 연구개발을 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데이터의 分析 및 展望技法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집된 情報나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蒐集된 데이터는 迅速하고 正確한 分析과 그 분석을 토대로 한 展望이 행해져야 비로서 그 價値를 발휘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正確한 分析과 展望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分析技法의 活用뿐만 아니라 새로운 技法의 개발에 대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技術 및 政策分析技法의 完備이다. 우리나라의 精油業은 技術面에서 매우 단순한 工程을 가지고 있으나 需要패턴의 變化, 즉 石油消費의 輕質化에 副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技術의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石油産業은 국가의 基幹産業인 동시에 全量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석유수출국들의 石油政策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正確한 政策分析이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協會는 技術 및 政策을 보다 正確하게 분석할 수 있는 技法을 完備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政府의 政策諮問에 應할 수 있는 專門人力을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 石油産業이 政府政策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石油協會는 보다 적극적으로 政策諮問 및 樹立에 參與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어야 바람직하다. 專門 分析팀의 構成과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石油問題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도 없는 반면에 이 문제만큼 專門家가 결핍되어 있는 분야도 드물다. 政策의 合理的인 추구하고 國民經濟의 利益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의 石油産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協會가 앞장서서 研究開發에 대한 投資와 專門家 養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적극적 投資가 이루어 질 때 協會의 發展은 더욱 加速化될 것이다. *



精油社間の 利害關係調整에 보다 果敢한 이니셔티브를 行使하기를

金 東 源 (動資部 事務官)

大韓石油協會가 발족된지 9월로서 1周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년동안 石油協會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成長을 거듭해오으로써 이제는 본격적인 活動期를 맞은 듯하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 油協이 발족할 때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짧은 기간중에 이처럼 비약적인 發展을 이룩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石油協會는 全任職員이 일치단결 努力함으로써 名實共히 精油業界의 의견을 集約, 이를 건전한 方向으로 유도 해왔을 뿐만 아니라 政府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여러사람이 石油協會에 걸었던 期待를 충족시켜 주었다.

사실 精油会社간의 利害關係가 상호 교착되는 경우에는 決定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調整해 줄 수 있는 役割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경우 從前에는 当事者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다른 곳으로 問題를 확대, 비화시키는 때도 있었으나 石油協會가 設立된 이후에는 업계자체의 문제를 業界自体内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国内 석유제품의 輸出入추천과 같은 중요한 업무도 當初 정부에서 행하던 것을 石油協會에 委任하였던 바, 國內의 油類需給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必要한 製品의 輸出入을 適期에 이루어 나감으로써 國內 油類需給차질을 사전에 방지하는등 부여된 任務를 잘 수행하고 있다.

물론 歷史가 日淺한 관계로 모든업무가 100% 만족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現在까지의 업무처리 力量으로 보아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보다 중요한 일을 보다 完全하게 處理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현재 훌륭히 일하고 있는 石油協會에 走馬加鞭으로 몇가지 바라는 바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精油社間の 민감한 이해관계 調整에 보다 果敢한 이니셔티브를 行使하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利害關係가 큰 문제일수록 客觀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3자로서 石油協會와 같은 기구가 介入함으로써 公正한 입장에서 이를 調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石油協會는 보다 能動的인 자세로 業界를 조정하여

所期の 成果를 달성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단순히 業界立場에만 서지 말고, 國民의 입장, 政府의 입장도 고루 調和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業界立場이란 때로는 消費者나 정부입장과는 相馳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油協이 업계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招來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石油協會에 바라는 것은 業界의 正當한 主張은 이를 충분히 소화시켜서 주장하되, 정당하지 못하거나 無理한 주장은 關係会社를 설득·납득시킴으로써 명실공히 精油業界를 리드해 나가는 指導的인 位置에서 달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4.19油價조정시 政府는 앞으로 油價調整은 油協에 위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主要關心事는 油協이 이를 어떻게 소화하여 対処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油價業務는 가장 敏感한 反應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油價조정에서 引上率이 지나치게 小幅이면 精油業界의 정사가동 및 운영에 支障을 초래하게 되고, 그 引上率이 높으면 수많은 消費者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같은 引上率에서도 油種間的 가격구조결정은 各精油会社間에 상당한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石油協會는 이러한 油價調整業務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能力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물론 政府로서도 油價自律化의 초기단계에서의 試行錯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調整基準 示達및 사후감독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나, 앞으로는 油價조정업무는 기본적으로 油協의 責任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対処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그밖에 정부에서 委任하고 있는 業務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다. 政府가 여러가지 업무를 위임하는 理由는 油協이 機動性 있고 現實感覺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리라고 期待한 때문이다. 흔히 정부가 어떤 協會에 업무를 위임하면 그 協會의 職員이

担当公務員보다 더 官僚的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나 石油協會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精油業界에 대한 國民의 誤解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精油業界 자체에 그 責任이 있다고 하겠다. 다행히 石油協會는 業界를 대표하는 機構로서 이러한 國民의 偏見을 해소하는데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유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石油協會가 國民의 理解를 얻고, 精油業界가 수행하고 있는 役割을 國民들이 충분히 共感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

다음으로는 精油業界의 건전한 育成·發展을 위해 참

신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정부에 建議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단순히 業界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提出하는것도 좋겠지만 정부로서는 높은 次元에서 石油政策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을 建議해주시기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관련업체의 資料 등에 관해서도 이를 충분히 수집·정리하여 수시로 참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不斷한 研究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石油協會에 거는 기대는 대단히 큰 것이며 또한 이러한 기대를 充足시킬만큼 油協은 意志와 能力이 있다고 믿는다. 創立 1周年을 맞이하는 大韓石油協會의 앞날에 榮光과 發展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精油業界의 이미지刷新에 앞장서도록

鄭 信 模 (서울신문·記者)

精油業은 국가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基幹산업이다. 우리 경제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때 精油業이 가장 중요한 심장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평범한 상식을 지녔다면 아무도 이같은 비유가 틀렸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현대문명이 석유에 바탕을 둔 것이라느니, 또는 우리나라 총에너지需要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64%가 된다는니 하는 설명은 차라리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유업체처럼 국민들로부터 不信받고 비판당하는 업종도 역시 드문 것 같다.

다소 과장한다면 국내 기름값이 올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다분히 정유업체의 농간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최소한 原油價가 오르면 정유업체는 그만큼 더 재미를 보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정유업체가 赤字를 냈다는 사실은 아예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용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애시당초 거짓말로 여긴다.

石油協會報 창간호에서 어느 정유업체 사장이 지적했듯이 정유업체는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買辦산업, 물가인상을 선도하는 악덕기업으로 비난받아왔다.

국가경제에서 그토록 중요한 정유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비쳐진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

건 우리 모두를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메이저와 合作으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정유업이 미운 열굴로만 비쳐진 것은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이익보장」「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불평등계약」「果實송금」등은 지난날 메이저와 또 그가 경영하는 정유업을 마음놓고 비난할 때 낱익은 말들이다.

누구도 韓國에 투자하기를 꺼리던 시절 메이저가 우리나라 최초의 合作기업으로 국내에 진출했었다는 점, 울며겨자먹기로 이익보장등 각종의 불평등계약을 감수하면서도 메이저를 모셔오지 않으면 정유공장을 세울 수 없었던 우리의 기술 등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또 그같은 굴욕이 밀거름이 꽤 오늘날 우리나라 정유업이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제품을 전량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도 모두 지나쳐 버리고 있다.

국내 정유업이 출발 당시부터 不信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더우기 국민들은 70년대 초반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받아왔고 그와 함께 정유업체에 대한 不信도 깊이를 더하게 됐다.

메이저를 비롯한 세계 有數의 석유재벌들이 原油價가 뛴 때마다 더 많은 이익을 올린다는 外信도 전해졌다.

그동안 정유업에 관해 국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은 이처럼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한석유협회로서는 무엇보다 우선 국민들의 不信부터 씻어내는 일이 급하지 않을까?

정유업을 미운 오리새끼로만 알고있는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지난해 赤字를 낸 정유업체는 올 상반기에도 1천억원 이상의 缺損을 냈다.

현재 제품가격에 환율과 이자율, 그리고 정제비 등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품값이 그만큼 싸다는 얘기다.

경영합리화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제품값을 올려야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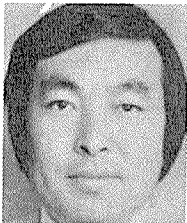
그러나 油價를 올리라는, 또는 올려달라는 소리는 들어볼 수가 없다.

배 고픈 건 분명한데 젓 달라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른(국민)들의 매(비난)부터 앞설까 두려운 탓이 아닐까? 또는 굶지는 않게 된다는 확신에 따른 배짱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예를 든다면 石油化学工業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원료인 나프타 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요란하다. 또 자동차공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휘발유값과 세금을 내려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도록 해야 된다는 소리도 그 목청이 제법 크다.

5개社의 연간 매출액이 5.5조원에 이르는 정유업은 가히 그 규모와 저력이 어마어마하다.

뻔한 시장을 놓고 아웅다웅 하느니 그 비용의 일부를 아껴 이미지 쇄신을 서두르는게 급선무가 아닐까?*



石油問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形成에 努力토록

劉 在 喆 (每日經濟·記者)

石油만큼 무서운 상품이 또 있을까. 국민의 뇌리에는 石油에 대한 공포가 깊게 새겨져 있다.

産油國의 존재가 무섭고 메이저가 두렵다. 그래서 精油業者들도 여느 산업체들과는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된다.

국내 5개 정유업체들의 모임체인 石油協會는 발족된 지 1년밖에 되지않았다.協會는 비상한 관심속에 지난 1년간 제자리를 잡기에 노력해왔다.

사실 연간 5.5조원씩이나 매출하는 精油業界로서는協會발족이 늦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美國의 걸프가 이 땅에 상륙, 3만5천배럴의 기름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4년 4월이었다. 그 이후 精油業體는 5個社로 늘었고 생산능력도 79만 배럴까지 확대되었다.

精油業體들은 별도의 모임체 구성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오히려 강대한 힘이 동원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견제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油公의 생산이 개시된 이래 17여년만에協會가 출범했다. 그것은 정부나 업계가 그 존재와 기능을 다함께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

精油業界에 販賣戰이 붙었을 때만해도 그렇다. 各社의 利害關係가 날카롭게 엇갈리면서도 서로 만나 문제를 토의했다. 그것은協會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모임체가 없어도 업계대표들은 만날 수 있다. 문제를 토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도 중간 조정을 하는 조직도 없이 그러한 일을 해낸다는 것은 더욱 고달픈 것이다.

5個社의 대표들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했다. 자칫 부끄럽게 되기 마련인 치열한 판매전은 일단 큰 불을 껐다.業界의 울타리 밖으로 확산되어 서로의 체면에 먹칠하는 극단적인 흐름을 막는데 성공했다. 지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도 보기 좋다.

업계의 동향을 알려주는協會誌도 정기간행물로 나왔다. 각회원간의 동정을 알리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매체로서協會誌는 날로 내용에 충실도를 더해가고 있다.업계뿐 아니라 많은 업계 밖의 사람들이協會誌를 보고자 원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겠다.

또한協會는業界의 문제점을政府에 전달하는 기능도 가동시키고 있다. OPEC가 油價單一化를 논할 때

업계 대표들은 協會에 즉시 모여 국내에 파급될 영향을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協會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국내 油價인상을 건의하기도 했다. 업계가 유가인상을 표면적으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은 드문 일이었다.

協會는 흔히 교량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업계의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뜻을 업계에 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石油協會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일을 떠맡게 된다.

석유가격은 앞으로 경제의 民間主導추세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自律化될 수밖에 없다. 연간 5.5조원의 기름값을 정부가 언제까지나 쥐고 있을 수는 없다.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뒤로 미뤄본들 그 충격은 나중에 더욱 커져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이다.

政府도 그런 뜻에서 自律化의 방향을 밝힌 바 있다. 協會가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協會에 거는 기대는 크다. 자율화에는 상응

하는 의무가 뒤따르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公正性이다.

기름은 국민경제의 혈액이다. 따라서 協會는 명실공히 업계의 求心점이 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조정해나가기 바란다.

물론 5개사의 입장이 저마다 달라 이를 조정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공통분모를 찾아 결속시키는데는 남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協會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自律化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갈 것이다.

協會는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석유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協會는 수개월전 일반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과는 의외로 석유에 대한 상식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協會는 앞으로 석유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도 석유공포를 덜고 정유업계에 대한 지나친 불신감도 아울러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未来指向的인 協會가 되어야 한다.

柳 龍澤 (油公·法制部)

協會가 石油業界와 政府의 聲援속에 発足된 때가 옛 그제 같은데 벌써 創立 한 돌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하여 眞心으로 祝賀를 드린다.

設立된지 日淺하고 人員과 予算이 制限된 상황하에서도 期待以上の 実績을 이룩한 협회에 대하여 새삼 바라는 바 없겠으나 협회설립 目的事業의 성공적인 수행에 연관된 몇가지를 여기에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協會가 항상 전체회원사 爲主로 운영되었으면 한다. 協會의 구성원인 개개의 會員社는 영리법인이지만, 協會는 그와 구별되는 독립의 비영리법인인 만큼, 그 고유사업목적에 따라 獨立性과 自律性을 지키면서 활동해야 하므로 어느 특정회원사의 利益만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본다. 또한 協會가 정부의 규제·감독을 포함한 業務執行上의 제약이 수반되는 결과, 정부정책의 對業界傳達, 정부의 法令·告示로 위임한 사항들을 수행함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石油業界의 意見集約·調整과 이익추구를 위해 순수미간단

체로서 出帆했던 당초의 설립취지에 부응하여 전체회원사들의 권익반영과 공동의 이해내지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這間에 국내경기의 침체와 석유제품의 소비부진속에서 會員社間에 善意의 競争을 넘어선 過熱競争이 야기되었을 때 協會가 求心점이 되어 業界가 원만한 타협점을 마련함으로써 平穩을 되찾고 상호이해와 서로 反省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었다.

둘째, 깊고 다양한 최신의 情報提供을 기대한다. 國內外의 經濟狀況下에서, 또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情策의 洪水속에서 有益하고 時宜適切한 정보를 기업이 신속·정확하게 提供받는 것은 企業의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여 기업경영의 成敗를 좌우하는 無形의 資産이라 불리울 만큼 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協會가 「石油協會資料集」「日本石油關係法規集」등을 발간하여 業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밖에도 各種 石油 情報의

수집·분석·평가등 調査研究事業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 産油國·國際原油市場및 선진제국의 精油業界의 動向등 우리 石油業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情報를 適期 提供하는데 더욱 애써 주셨으면 한다.

셋째, 未來志向의인 協會가 되었으면 한다. 「歷史는 잉크대신 石油로 쓰여진다」는 오늘에 있어, 石油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극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그 전망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80년대의 우리 石油業界가 나아가야 할 座標(필요한 物量을, 안정된 價格으로, 適期에 공급)에 맞춰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協會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 또한 先進諸國의 협회, 예전대 美國石油協會(American Petroleum Institute)나 日本石油連盟과 같은 水準以上으로 一挙에 많은 成果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르겠으나, 머지않은 將來에 우리 石油協會도 그러한 協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높은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넷째, 協會의 업무수행을 뒷바침할 制반 法的根柢를 마련했으면 한다. 석유업계를 代辯하는 協會가 能動的으로 制반 업무에 임하는데 있어서 뿐만아니라, 協會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도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현재 국내석유업계는 油價의 정부통제로 인하여 適正利潤보장이 미흡한 價格管理体系下에서 經營取次가 惡化一路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協會에 대한 지속적인 支援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油價連動制實施와 관련하여 국내석유류제품의 가격책정에 관한 업계의 의견집약·조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協會에 一任하고 있으므로, 협회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는 자못 크다. 아울러 협회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한다.*



石油産業의 先導役割을 바란다.

金 汝 榮 (湖南精油 人事部)

會員相互間의 理解와 友好增進을 통해 石油産業의 健全 發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에 그 설립을 보게된 石油協會는 그동안 여러 면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왔다. 특히 精油社에서 별로 다루지 못했던 石油産業의 近況및 石油價格의 이모저모를 상세하게 보도하여 준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精油社의 과장급이상 名單紹介도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측면에서 볼때 石油協會는 분명히 다른 대부분의 협회와는 달라야 하겠다. 보통 “協會”라고 하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강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된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협회들은 대부분 건전한 활동보다는 壓力團體로서의 기능만을 크게 강조한 나머지 일반인들의 빈축을 사기 일쑤이다.

물론 石油協會는 그 性質上 다른 협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지만 아뭏든 좀더 참신하고 발전적인 협회가 되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잘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精油社들 間에는 相互協調 體制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다. 말없는 競爭속에서 스스로를 키워나가면서 情報의 交換도 별로 없이 안일하다 싶을 정도로 消極的인 자세로 일관할 때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石油協會의 할일은 더욱 많을

것 같다.

우선 石油産業의 體質및 展望을 더욱 쉽고 구체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 줌으로써 그들이 정확하게 石油産業을 理解할 수 있게끔 하였으면 한다. 물론 지금의 諸般記事도 거의 잘되어 있지만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꾸며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다음으로 精油社間의 친목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계기는 만들 수 없을까? 서로가 친목을 통하여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도 있고 나아가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료의 수집및 석유산업의 홍보라는 평면적인 활동보다도 실질적으로 石油産業에 있어서의 先導役割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研究部를 두어 石油産業의 현안문제및 다가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精油社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유사에서는 細部的인 문제들만 처리하고 보다 더 크고 根本的인 연구과제들은 協會의 적극적인 활동에서 더욱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石油協會의 하는 일이 實質的이고 有益할때 각 정유사들은 아낌없는 협조와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서 石油協會는 일반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石油價格形成原理라든가 原油導入의 實際, 나아가서 現物市場등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일도

함께 하여 주었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창립 1周年을 맞는 石油協會의 發展을 빌며 앞으로 더욱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



特定會員과의 癒着이나 官僚化는 피해야 한다

張 永 俊 (極東石油 業務部)

「會員相互間의 理解와 友好增進을 통한 健全한 石油産業 發展」이라는 旗幟아래 精油社의 통일된 의지의 표현으로 발족된 石油協會가 어언 創立一周年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회원사간 친선 테니스대회등 親睦事業에서부터 각종 수급통계보고업무, 資料맞춤誌발간과 政府의 위임업무인 製品輸入추진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보여준 의욕적인 활동은 그 功過를 따지기에 앞서 일단 協會가 정착을 위한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創立 1周年을 맞는 오늘, 앞으로의 더욱 성공적인 협회의 운영과 活動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協會에 바라고 싶은 個人的 所見을 피력코자 한다.

무엇보다 協會의 官僚化를 경계해 주기 바란다.

協會의 最高의결기관이 精油 5社의 대표로서 구성되며 (물론 政策會員인 PEDCO가 있긴 하지만) 예산을 전액 精油社의 出損에 의존해야하는 協會인 만큼 精油社의 意思를 벗어난 協會의 存立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精油社의 統一된 意思의 범주에서 決意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協會라는 「法人」을 통하여 개별 精油社에 행사되는 과정에서, 또는 協會의 기능중의 하나인 政府의 위임업무를 집행하는 「公人」의 입장에서 協會는 자칫 精油社와의 水平的 構造關係에서 벗어나 官僚的 자세에 빠져들기 쉬울 것이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회원사간의 利害가 대립되는 경우 이의 單面的 調整이나 해결을 위하여는 公人이 갖는 「힘」의 발휘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고 감독기관의 사후 감사를 對備한 충분한 資料구비도 필요하겠으나 協會가 회원사의 이해나 호응을 벗어나 展示的 權威를 내세운 다든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자기보호」만을 위한 官僚的 立場을 취한다면, 정유사에게 있어 協會라는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의 몸을 묶는 사슬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協會는 特定會員과의 癒着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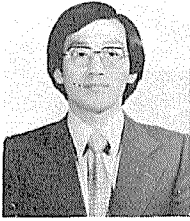
協會는 機關會員인 PEDCO를 제외하고는 각각 독립되고도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5個의 정유사로서 구성되는 만큼 協會의 업무처리도 5개 정유사에 대하여 公平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회원사의 利害가 직접적으로 競合이 되기 쉬운—예컨대 제품수입 추천이나 할당관세추천, 市場正常化 方案등—업무인 경우 이의 처리과정이나 政府에의 건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잃고 어느 特定會員을 庇護하거나 유리하도록 協會가 작용한다면 協會는 정유사의 統一된 의지를 와해시키고 영향력있는 몇개 회원사의 侍女로 墮落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적극적 기능발휘를 위한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바라고 싶다.

協會가 단순히 會員社의 의견을 대변하고 政府施策을 會員社에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수집 분석하여 정확한 政策資料를 政府에 제공하므로써 政策方向을 제시해주는 積極的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 協會는 부단히 새로운 지식과 情報의 수집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民間主導 經濟體制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주요 정부업무의 상당부분을 受任해야 할지도 모를 協會인 만큼 各 會員社에서 細分化되고 專門化되어 처리되는 모든 업무를 總括的으로 다루기 위하여는 協會는 石油關係의 보편적 知識은 물론 개별 會員社의 特殊事情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름든 오늘 창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 艱苦를 겪으며 協會를 건강히 키워온 協會 임직원 여러분의 勞苦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燦爛한 活動을 통해 協會가 명실공히 이나라 精油社의 「代父」로서의 所任을 다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



流通秩序 확립에도 배려있기를 바란다.

李 驪 熙(韓國石油流通協會 企劃調查課)

今世紀 後半에 들어 와서 世界經濟의 成長發展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需要가 급격히 증가되어 왔으며, 따라서 비교적 低廉하고, 이용에 便利한 石油은 에너지部分의 가장 重要한 위치를 더욱 確固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동안 經濟의 高度成長에 따라, 國內 에너지源 中 石油에 대한 依存度가 62年의 9.5%에서 80년에는 60%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石油가 가장 比重이 큰 에너지로서의 位置에는 變動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世界經濟는 이와 같이 重要한 石油의 供給問題와 價格調整으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및 景氣後退, 國際收支의 惡化, 그리고 失業의 增大라는 4重苦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1. 2次 石油波動 이후 심각하게 擡頭되고 있는 石油武器化는 현존 原油의 供給을 100%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 이외에도 新生 中進工業國으로 발돋움하려는 現段階에 있으므로, 原油의 지속적이고도 低廉하고, 安定된 供給을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런 此際에 지난해 大韓石油協會의 창립은 비단 石油類業界만 아니라 石油가 에너지源으로서 重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鼓舞的인 일이라 하겠다.

현존 石油類製品의 流通構造는 다른 工業品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流通構造로 되어있다. 즉 精油会社에서 代理店, 대리점에서 注油所, 주유소에서 一般消費者로서, 단계별 유통기구로는 生産者인 精油 5個社, 都売業인 대리점 89個社, 小売業인 주유소 1,524個所와 販賣所 6,000余個가 있는바, 이 중 石油協會는 생산자인 5個 精油会社가 會員으로 되어 있어, 國內 石油類 製品供給 및 시장형성에 실로 그 比重이 상당히 크다 하겠다.

이번 9月 29日로 大韓石油協會의 創立은 만 1年이 된다. 그간 石油協會는 國內 石油類製品의 供給 및 가격안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重要한 에너지源인 石油에 대한 價

格安定 및 持續的 供給에 대하여는 一抹의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본다.

이에 本人은 大韓石油協會의 創立 一周年에 즈음하여, 協會의 폭넓은 역할과 기능을 기원하며, 다음 몇가지의 바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持續的이며, 安定된 原油의 供給 추진이다.

현재 原油의 供給을 100%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일반적인 國內 導入先은 불과 數個國에 국한된 것이 現 實情인 바, 導入先의 多변화로서 不規則的으로 발생하는 石油波動의 충격을 방지해야 하겠다.

둘째, 石油價格의 安定 및 低廉化問題이다.

石油協會는 傘下 精油会社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安定되고, 저렴한 價格의 原油를 도입, 供給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셋째, 諸般 石油類事業에 관한 情報蒐集 및 弘報활동의 전개이다.

石油가 이 땅에 들어온지 數十年이 지난 지금까지 石油에 대한 뚜렷한 專門的인 政策樹立 및 決定機構나 資料가 不足한 것이 現 우리나라의 실정인 바 정부의 政策施行資料나 기타 소비자인 國民生活에의 利用 및 계몽을 위해 石油協會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產油國 동향과 市場情報, 最新石油情報 및 諸般 統計資料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石油産業의 발전을 위한 研究 및 폭넓은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면 한다.

넷째, 流通秩序확립을 위한 노력이다.

石油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原油導入 및 精製인 바, 따라서 導入 및 精製 이후 소비자에 이르는 流通分野에 대하여는 소홀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消費者들의 입장에서는 이 導入 및 精製 이후 공급시까지의 流通過程이 重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石油協會로서는 導入 및 精製 以後의 流通過程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보다 안정되고, 신속한 物量流通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大韓石油協會의 創立 1周年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石油産業 및 業界의 振興·發展에 石油協會의 赫赫한 貢獻을 기원하는 바이다.*